

<‘데이터로 찾고 영양으로 채우다’>

식품영양정보, ‘K-FIND’로 쉽고 빠르게 찾아보세요

- 식품영양성분 DB, ‘K-FIND(케이-파인드)’로 새롭게 출범
- 세계 최고 수준의 누적 32만 7천여 건 구축…공공·민간 활용 539만 건 돌파
- 보다 쉽고 직관적인 검색 서비스와 생활밀착형 영양정보 지속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이 일상에서 식품의 영양성분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DB)를 ‘K-FIND(케이-파인드)’로 새롭게 출범하며, 총 32.7만 건*의 식품영양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 개방 건수(누적) : (~’24) 15.2만건 → (’25) 27.2만건 → (’26.6) 32.7만건

‘K-FIND’는 'Korea-Food and Nutrition INformation Database'의 약어로, 모든 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모아 국민, 업계, 전문가가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식품영양데이터 플랫폼을 뜻한다.

‘데이터로 찾고, 영양으로 채우다’라는 새로운 슬로건에는 정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 K-FIND(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개요 >

- 브랜드명 : K-FIND(케이-파인드, Korea-Food and Nutrition INformation Database)
- 슬로건 : ‘데이터로 찾고, 영양으로 채우다’
- 기능 : 영양성분 정보 조회, 영양서비스(영양정보 비교하기, 나의 영양성분 섭취량 등)
- 누리집 : <https://various.foodsafetykorea.go.kr/nutrient>



식약처는 '07년 약 2만 건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 수집·개방 이후 '26년 6월까지 수입식품을 포함하여 가공식품 29만 8천 건, 조리식품 1만 9천 건, 건강기능식품 5천 5백 건에, 관계부처*가 생산한 농·축·수산물 4천여 건의 정보를 합쳐 이번에 ‘국가 식품영양데이터 플랫폼 K-FIND’를 구축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과학원)

‘K-FIND’는 식품의 열량·탄수화물·단백질·나트륨·당류·지방 뿐 아니라 식이 섬유·비타민·무기질 등의 다양한 영양성분 정보(130여 종)도 제공한다.

우리나라 식품영양정보 플랫폼은 미국(FDC, 약 47만 건), 캐나다(CNF, 약 6천 건), 영국(CoFID, 약 3천 건) 등 해외 주요국 식품영양성분 DB와 양적·질적으로 비교해도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K-FIND의 데이터는 '22년부터 표준화된 공공데이터(Open API)로 개방*되어, 어린이집·학교·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시스템이나 다양한 식이·건강관리 서비스 등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영양·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업계·학계 등이 'K-FIND'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데이터 조회·다운로드한 건수**가 539만 건을 돌파하며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

** 조회·다운로드 등(누적) : (~'24) 160만 건→ ('25) 390만 건→ ('26.6.) 539만 건

K-FIND의 최근 활용 실적을 분석*하면 지방, 열량 위주로 조회하던 과거와 달리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등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고 있고, 달걀, 닭가슴살, 두부, 바나나, 현미밥 등 소비자 식생활 변화 트렌드가 나타난다.

* ('24.상반기) 지방 13,647건, 단백질 1,607건, 열량 1,255건, 탄수화물 1,005건, 칼륨 675건 등 ('26.상반기) 단백질 1,297건, 식이섬유 729건, 칼륨 605건, 비타민C 535건, 탄수화물 501건 등

이에 따라 식약처는 K-FIND의 데이터 제공 방식을 국민 수요를 반영해 보다 쉽고 직관적인 검색 서비스로 개선하고 생활밀착형 영양정보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가 식품영양데이터 플랫폼인 K-FIND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식품영양정보가 정부와 민간에서 널리 활용되고, 개인의 건강·신체 상태 등에 맞춰서 건강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이 필요한 식품의 정보 알권리가 폭넓게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쉽게 확인하여 일상에서 균형 잡힌 식생활을 누리고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붙임> 1. K-FIND(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안내
2. K-FIND(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활용법(카드뉴스)

담당 부서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고지훈 (043-719-2252)
		담당자	사무관	민정은 (043-719-2262)

□ K-FIND 브랜드 개요

구분	내용
브랜드 및 슬로건	
의미	■ 모든 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하나로 모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영양데이터 플랫폼 ■ 정밀한 영양 데이터 기반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
K-FIND 누리집	  https://various.foodsafetykorea.go.kr/nutrient 

□ 주요기능

식품으로 찾아보기	영양성분 비교하기
 	 
영양성분 DB / 공공데이터(OPEN API) 내려받기	나의 영양성분 섭취량
 	 

